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설명</h1>			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임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<b>담당자</b>	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833)	

## 제 목 : 「석탄 투자맨 ‘감점’... 은행평가 바꾼다」 제하 기사 (이데일리 11.23일자 보도)에 대한 설명

### 1. 기사내용

- 이데일리는 11.23일자 「[녹색금융시대]①석탄 투자맨 ‘감점’... 은행 평가 바꾼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우리나라가 NGFS에 가입하게 되면 ... (중략) ...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채권은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강제하는 식이다”고 보도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NGFS는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·재정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권고안과 가이드를 마련하는 기구입니다.

※ NGFS(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, 녹색금융협의체)  
 ▶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의체

- NGFS에 가입했다고 하여 NGFS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,
- NGFS 권고안은 기후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,
  - 구체적으로 고탄소기업 채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즉,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NGFS에 가입할 경우, 기후관련 리스크를 금융감독체계에 통합시키는 국제적 논의작업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며, 이로 인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## 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